김별아의 문학과 삶

표준어와 사투리, 그리고 탯말

"얼푼 오시우야, 음청 지다렜잖소!"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니 길목 곳곳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저 외계어 같이 요상한 말은 "얼른 오세요, 엄청나게 기다렸지 않겠어요!"라는 뜻의 내 고향 강릉 사투리이다. 평범하고 간단한 환영 인사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억양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확연히 새롭다.

이따금 방송, 주로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이는 강원도 사투리는 보통 대관령 동쪽 영동지방의 말이다. 춘천, 원주 등 영서지방 사투리는 영동지방의 것과 전혀 다르고, 같은 영동이라도 북쪽에서 이주한 실향민들이 많이 터를 잡은 속초와 경상도와 잇닿은 태백, 삼척의 말투가 미묘하게 다르다.

강릉 출신 아버지와 춘천 출신 어머니를 둔 나는 영동과 영서의 결합으로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는 편이다. 자라나면서 배운 말을 모어 혹은 모국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표준어에 가까운 어머니의 말을 익혔으되 줄곧 아버지의 말을 쓰는 지방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강릉 사투리가 재미있긴 재밌나 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라고 전라도 사투리를 아름답게 구사한 김영랑의 원시(原詩)를 강원도 사투리로 바꾸어 읽으면, "목단이 벙글기까정은/ 내는 상구 내 봄은 지달리구 있을 기래요"가 되어 버린다.

강릉 사투리는 높디높은 강원도의 산들과 그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파고든 길들을 닮았다. 투박하고 때로 엉뚱하다. 그처럼 각 지방의 사투리는 그 동네의 산과 길, 자연을 닮았다.

바다에 전혀 접하지 않은 북도와 서해에 면하고 있는 남도가 다르긴 하지만 온화한 기후와 산수를 닮은 충청도 사투리, 크고 작은 분지와 평야가 험한 산지 골골마다 펼쳐져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잘 지킬 줄 아는 정서를 드러내는 뚝뚝한 경상도 사투리, 너른 평야와 바다가 한없이 풍요로워 금물결처럼 파도처럼 가락을 타고 너울거리는 전라도 사투리, 섬 특유의 풍물과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외국어처럼 독특한 제주도 사투리….

때로 생존을 위해 자연에 맞서 싸우고, 때로 자연에 수긋이 복종해온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이 오롯이 말 속에 배어든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표준어의 등장 이후 사투리는 '끼리끼리 쓰는 말'로 유행어나 비속어와 함께 부수적이고, 개선되어야 마땅한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말로 '촌놈들' 끼리끼리 사투리를 무기 아닌 무기로 삼기도 했다.

요즘의 왕따 현상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에도 친구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들이 있었다. 따돌림의 이유는 대체로 우리와 같지 않음, 다름 아닌 다름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련되거나 타지방에서 이사 온 아이들에게 달라붙는 꼬리표가 '서울말을 쓰면서 잘난 척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우습고도 슬픈 일은, 그렇게 '서울말'을 백안시했던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 다투어 사투리를 버리고, 나긋나긋한 표준어인 서울말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또 다시 그곳에서 같지 않음, 다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통·통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안방에서, 손바닥 안에서 표준어를 접한다. 쉽게 배워 절로 익힌 '서울말'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만큼 사투리는 점점 더 투박하고, 촌스러운 우스갯거리가 되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희화화되는, 그리하여 모두가 꺼리는 토박이 말을 사투리라 칭하는 대신 '탯말'이라 부르자는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 태중에서 듣던 말이라 탯말이라는 설명에 빙그레 미소가 지어진다. 어차피 언어는 유기체인지라 나고 자라고 죽어 사라진다. 하지만 사투리 대신 탯말이라면 느낌과 대하는 태도가 얼마간 달라진다. 언젠가 엄마의 품을 떠나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그 이별을 늦추고 싶다.

낯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칠 때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매개가 된다. 그 말 앞에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 죄 없는 천둥벌거숭이가 된다. 촌스러워도 좋다. 투박해도 좋다. 아니, 투박하고 촌스러울수록 좋다.

해남이 고향이었던 미암 유희춘은 조선 명종 시절 요즘 말로 하자면 공작정치에 비견될 이른바 '양재역 벽서 사건'에 휘말려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을 갔다. 미암은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이 축출될 때까지 무려 18년을 그 추운 땅에서 살았다.

그때 장성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인상적이다. "사투리를 잃지 않은 십년 나그네. 부질없이 고향 꿈만 꾸고 있다네……" 함경도 동토에서 남쪽의 고향을 그리는 미암에게 탯말은 곧 따뜻한 꿈이요, 꿈길이었던 것이다.

〈소설가〉

종교칼럼

시국미사 옳은가, 그른가

김 관 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지난 9월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천주교인들의 시국미사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9월1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광주대교구 사제들과 신자 1200여 명이 5·18기념 남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한 뒤, 북동 주교좌 성당까지 묵주기도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의 15개 교구 명의로 그리고 전체 2124명의 사제와 5000명의 수도자와 가톨릭 신자 1만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주교회의 현실참여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일간지 논설위원은 "현실정치에 종교적 신념이 개입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기도생활이나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강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착한 신앙인이란,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생활만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사실 천주교신자들 중에도 교회의 현실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견해를 지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듯 보이기에, 신자들 가운데서도 '천주교회가 무슨 근거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뛰어드느냐' 또는 '미사가 순수하게 미사이어야지 무슨 시국미사냐? 미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의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주신 정의의 하느님이셨고, 신약성경의 예수님 또한 당시 유다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했던 이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정의를 확연히 드러내셨습니다.

지난 5월18일 성령강림대축일 전야 미사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가 혼탁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계속 혼탁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17일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거행된 미사 강론 중에서도 사회교리를 인용하시면서 "사랑의 높은 차원의 형태가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기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주교인이건 아니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정자들의 통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정자들이 공동선을 위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위정자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까요?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어지는 강론에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는 자신을 헌신하며 정치에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위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위정자가)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천주교회에서 드리는 미사의 의미에 대해 아십니까? 미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숭고한 예배 행위이며, 천주교회의 공적인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사의 집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국미사는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인들이 위태한 시국을 위해 그리고 위정자들의 회개를 위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시국미사에 초대합니다. 아멘!

기고

무향(舞鄕) 광주의 명성을 이어가자

정 희 자
광주교육대 체육교육과 교수

필자는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광주에 있는 한 발레연습실에 갔었다. 어린 기억에 멋쟁이 무용선생님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름다운 동작들을 표현하는 예쁜 언니들의 열정에 매료되어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발레를 시켜달라고 엄마를 졸랐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나는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발레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발레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그렇다. 무용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체적 가치,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안을 육성시키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에 초등교육에서도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 중에는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정서와 예술적 감동이나 의지적 행동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정서와 감동을 통해서 형상·색상·음률·동작·언어 등으로 사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게 하고, 이와 같이 표현된 예술작품을 재현하거나 감상하게 하는 교육에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이 발견된다.

최근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도 무용이 단순히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동들의 정서성, 사회성, 그리고 자기단련 등에 중점을 둔 진정한 그리고 보편적인 예술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 선각자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술적 자질이 있는 소수를 선발하여 그들의 재능을 계발하는 전문적 영재교육이 아니라, 모든 이의 창조성을 계발하고 심미감(審美感)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예술교육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용관련 대학교수들 중 광주출신이 30%에 달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같이 발레를 하였던 그 예쁜 선배들이 상당수 현직 무용관련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어렴풋한 옛 기억에도 다른 지역의 무용인구보다 월등히 많았고 무용 수준 역시 우수했다.

심지어 전국학생무용콩클에서 광주지역의 학생들에게 싹쓸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깨가 으쓱으쓱한 일이다. 이러한 원동력은 결국 자기단련에서 시작이고 멋쟁이 스승님들의 억척스러운 열정, 그것이 광주무용계의 풍토로 자리메김을 한 것 같다. 이는 광주의 굉장한 예술적·인적 자산들이다. 또한 광주에는 유일한 지방 발레단인 광주시립발레단은 광주 무용 예술인의 자부심이자 긍지이며 애착이다.

지금은 자기 단련으로 뭉쳐진 무용인들의 자부심과 긍지와 애착이 또 다른 분출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소수만이 접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공연이 아닌 어린이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발레단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도 또 다른 분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27일 광주문화재단이 창단된 이래 아시아가 하나가 되는 한·중·일 공연이 있었다. 공연의 요지는 무용을 통한 한·중·일 문화교류였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광주 무용인들의 열정과 열의를 다시 일깨워주는 장이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한 2014년에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무등산의 정기로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광주의 쟁이 기질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향의 광주라고 일컫는 것 일게다.

발레는 자기단련(self-decipline)으로 시작한다. 20세기 미국 안무가인 아그네 드 밀(Agnes de Mile)은 "절대로 매일의 연습에 빠지지 마라.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바(Barr)연습을 빠뜨리지 마라.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안자고 리허설을 빼먹을지라도 절대로 연습은 단 하루도 빠지지 마라" 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발레는 자기단련(self-decipline)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어린 학생들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그 원칙은 자명하다. 이러한 자기 단련이 예술적 쟁이 기질이 되는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 說

여수세계박람회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상 겉돌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낙후된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성공리에 개최됐지만 대회장이 장기간 방치돼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차 매각에 실패한 박람회장은 연간 유지·관리비용만 2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초 목적대로 박람회장을 활용해 지역균형발전과 해양부문의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

행사 후 정부는 박람회장을 팔아 선투자한 4846억 원(미상환액 3846억 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경기침체로 매수할 기업을 찾지 못해 박람회장을 묵혀 두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람회 재단 운영 및 시설 유지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필요하다니 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다 박람회 유치 당시 1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해결을 공언한 '여수프로젝트'는 단 한 푼의 운영비도 모으지 못해 국가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던 여수박람회가 끝난 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즉흥적인 이벤트 행정 탓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실성 없는 매각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한 푼이라도 벌어들이는 게 현명하다. 즉, 정부의 추가 지원과 함께 박람회장을 장기 임대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또 선투자금 중 미상환액 3846억 원을 재투자함으로써 박람회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어렵사리 유치해 치러낸 여수세계박람회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학들, 시민에 도서관 개방 외면해서야

광주지역 대학 절반 이상이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개방적으로 활동해야 할 대학들이 도서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9일 내놓은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 이용에 관한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대학은 광주교대, 동강대, 동신대, 서영대, 전남대, 호남대 등 6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에는 광주교대, 동신대, 전남대 등 3개 대학만이 개방하고 있으며, 자료실의 경우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동강대, 동신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도서 대출 기간 및 권수, 이용시간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보다 훨씬 제약이 많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대학은 도서관 이용을 위한 예치금을 요구해 시민의 도서관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들이 도서관조차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라고 말했듯이 도서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과거 대학시절 공공도서관에서 주선해줘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도서관이 책을 읽는 장소를 제공하고 대출해주는 데 머물지 않고, 카운슬러 역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학 도서관은 건전하고, 교양 있는 시민 육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전면 개방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대학이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無 等 鼓

남도음식축제

시인 송수권은 남도음식을 '따순 짐나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탁의 원류라고 규정했다. 전라도 음식이 농경문화와 더불어 발전한 우리 민족음식의 '표본식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도음식의 요체를 '게미'라고 표현했다. 게미는 오랜 삭힘을 거쳐 나온 '야릇하고 곰삭은 맛'으로 삭힘새(숙성된 맛)가 들면 그늘있는 맛, 즉 게미진 맛을 낸다고 말했다.

게미진 맛의 대표 음식으로는 홍어삼합(홍어·묵은지·돼지 편육)을 꼽았다. 홍어는 두엄 속에 삭혀야 비로소 '지린 맛'이 생기고, 지린 맛은 갯벌 맛과 함께 곰삭은 맛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시인 문병란은 남도음식을 "썩고 썩어도 썩지 않는 것/ 썩고 썩어서 맛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전라도 젓갈의 맛이다/ 전라도 갯땅의 깊은 맛이다/ 괴고 괴어서 곰삭아서/ 맛 중의 맛이 된 맛"이라고 극찬했다.

남도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다. 이름하여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인데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낙안읍성에 가면 목포 홍어삼합은 물론 담양 한우떡갈비, 보성 벌교꼬막, 곡성 참게장, 영암 갈낙탕 등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남도가 지정한 남도음식 명인 7명이 정성들여 출품한 음식도 선보인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음식축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음식의 본류인 남도음식의 전시장이란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잔치라 할만하다. 600년 역사의 살아있는 민속마을에서 열린다는 점도 국제적인 음식축제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정체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남양주시가 얼마 전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76개국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음식과 전통요리를 선보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최초의 슬로푸드 국제대회라는 타이틀도 선점했다. 전남에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를 포함해 슬로푸드가 넘쳐난다. 게미진 맛은 슬로푸드와도 맞닿아 있다. 남도음식축제, 변화가 필요한 때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